

학생 거의 모두, 후기「절대반대」표명

외대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입시경쟁 계속해야

특정제도에 대한 개혁은 그것이 구조적으로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는 한, 아무리 불합리한 것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대학입시제도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실정법에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자율적 대학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5. 졸업정원제, 교수추천제

1980년 7월30일을 기점으로 한국의 대학은 50년 만에 큰 변동을 겪었다. 졸업정원제와 교수추천제의 도입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1. 로동조합
2. 학생들의 정치·사회적 참여
3.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4.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5. 졸업정원제, 교수추천제
6.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7.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8.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9.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정원제와 교수추천제의 도입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정원제와 교수추천제의 도입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천방법과 방법상의 문제에 따라 성패 달려

대규모 강의는 학문연구와 토론의 기회를 축소시켜

수업, 실험, 실습에 따른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강의는 학문연구와 토론의 기회를 축소시켜야 한다. 대신에 소규모 수업과 토론을 늘려야 한다.

수업, 실험, 실습에 따른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강의는 학문연구와 토론의 기회를 축소시켜야 한다. 대신에 소규모 수업과 토론을 늘려야 한다.

기계의 과잉충성

기계화, 자동화, 컴퓨터의 발달은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억압할 수 있다. 기계의 과잉충성을 경계해야 한다.

의식을 갖는 국민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의식을 갖는 국민이 많아져야 한다.

외대, 전기전통변환해야

5월24일자 일간지에 발표된 전기전통변환해야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개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전기에는 입시경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입시경쟁이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난항 거듭중인 운영위원회의 향방은

대학의 운영위원회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향방은 대학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대학의 운영위원회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향방은 대학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형식상의 단규가 아닌 실질적 단규에 과총회 수시 개최, 전학생 의견수렴 절실

대학의 운영위원회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향방은 대학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대학의 운영위원회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향방은 대학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대학의 운영위원회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향방은 대학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대학의 운영위원회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향방은 대학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